


시 기덕호

바람의 소리

산그늘에 숨어 있던 바람
들꽃에 포개지며
향훈이 코끝을 덮는다
폐부 깊숙이 스며드는
청신한 바람 풀피리 음률에
몸은 자유로 채워져
길 따라 추억을 품고
쉬어가는 철새들 사이에
갈대들 서걱대는
쓸쓸한 영혼의 소리
갈 향기 충분히 날리는
바람 소리 들었지
구름 위를 떠도는 바람의 눈
소리 없이 선회하여 삶을 흔들지만
내 안에 부는 바람
마음의 소리로 잠재운다

약력

▲'아시아서문학' 등단
▲한국문협, 광주문협 회원
▲광주시협 이사
▲아시아서문학 작품상 수상
▲시집: '그대있음에'



시 김능자

능수 벚꽃

선암사 앞 늪가에
능수벚꽃 한 그루
누구를 기다리다
저리 목이 길었을까


애가 타서
목마르면
물 한 모금
머금고

향 풀어
보낸 기별
아직도
못 달았다.

오지 않은 누군가를
기다리다, 기다리다
지난 바람 불듯
늘어진 모가지, 모가지……

약력

▲1994년 '문학춘추' 시, '수필과 비평' 수필 등단
▲1999년 아동문에 문학상 수상
▲시집 '하얀 민들레', 동시집 '청새알', 수필집 '세월의 숲'
▲문학춘추 작가회 부회장, 금초문학회장
▲전라수필문학회장 역임



시조 김옥중

무등산 입석대

김덕령 동상인가
장검을 비껴차고

임진란 맞이하여
분연히 일어나서

물리친
질세의 영웅
저 기상이 드높다.



약력

▲1980년 시조문학 등단
▲한국시조협회 부이사장 역임
▲한국시조시인협회 자문위원
▲한국민족문학상, 윤동주문학상, 한국시조협회문학상 대상
▲작품집: '빈그릇', '금강초롱꽃', '매창 시비 앞에서'



수필 아름다운 퇴장, 그 쓸쓸함에 대하여

잠 못 이루 뒤척이는 밤, 무심코 TV 채널을
눌렀다. 눈에 익은 백전노장의 가수께서 청
중을 압도하고 있었다.

'그대 없이는 못 살아. 나 혼자서는 못 살아,
헤어저서는 못 살아, 떠나가면 못 살아.'

관중은 기립 박수로 환호했고 백발의 청춘
은 그 특유의 제스처로 무대를 휘어잡고 있
는 중이었다. 과연 반세기쯤 품어왔던 '살아
있는 전설'답게 카리스마 넘치는 장면이었
다. 노래 중간중간 지나온 세월들을 곁들이
며 살아온 날의 소회(所懷)를 풀어 놓은 그의
얼굴은 여유로움과 아쉬움과 쓸쓸함으로 깊
은 눈이 더욱 깊었다.

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만류하는 사람들을
뒤로하고 손사래를 치며 당당히 무대 위에서
내려 올 결심을 한 그분의 이별 콘서트를 보
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.

좀 많이 아팠고, 천천히 나아지고 있지만

여전히 불편한 요즘이다. 제대로 잠을 자지
못하고 제대로 건지를 못하며 제대로 못 먹
는 동안, 어느새 절기가 바뀌었다. 이렇게 오
래, 이렇게 흐되게 아픈 적은 없었다. 무슨 신
호일까. 느닷없이 성성한 사람을 연타로 내
려지는 까닭은, 한 달 안에 무려 세 번씩이나
수술대 위에 눕혀버린 그분의 숨은 의도가
분명 있음이라. 축 처져 있는 육신을 위아래
로 훑어본다. 붓대로 칭칭 감아 매달아 놓은
두 발이 무언의 시위를 하듯 내 시선 위에 머
무른다. 그래, 무던히도 많이 써먹었다. 발병
이 날 만도 하지. 입담 좋은 내 친구의 말따
나 이 날수를 살면서 자동차 바퀴 한 개도 못
굴린 위인이 어디든 부르며 달려갔고 가 봐
야 할 곳이면 그 누가 말려도 기어코 가버려
야 직성이 풀리고 마는 삶의 연속이었다. 그
러나 미련이나 후회는 없다. 다만 마음 안에
점점한 부분이 있다. 거칠 것 없이 달려왔던

긴 여정에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여러 번
있었을 것이다. 그 마지막 선을 본의 아니게
넘어서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혹여 생재기
를 내지는 않았는지.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
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과 독선의 칼을 휘두
르지 않았는지 시방 가만히 돌아볼 일이다.
특히 '욕'하는 급한 성격 탓에 공든 탑이 무너
지면서 그 밑에 깔린 상대방의 비명을 방관
하지는 않았는지. 방 한 칸을 차지하고 누워
있으니 지나간 별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
이어진다. 흑백 사진으로 여과 없이 넘어가
는 그그 작은 내 삶의 편린들. 마치 파죽을 맞
추듯 가닥가닥 들춰가며 맞춰본다. 때 늦은
회한이 가슴을 후린다. 진정 내 인생의 가을
은 이미 만추를 지나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
는데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앞에 나는 지금 무
엇을 해야 하는가. 마지막 남은 열정으로 내
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. 곰곰이 생
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다.

그때 어디선가 큰 울림으로 내게 이르신
말씀. "이제 그만 쉬어라, 그리고 이제 그만
모든 것을 내려놓아라." 하신다. 나는 순간 고
개를 떨쳤다. 갑자기 맥이 풀렸다. 그리고 사
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였다.

'그렇습니다. 가까이 내려놓겠습니다. 이
제껏 서 뚰어치도 안 된 욕망을 부둥켜안고
안간힘을 썼습니다.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
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었
는지 모릅니다. 어리석게도 무엇을 비울까
보다는 무엇을 담아갈까 아직도 두리번거렸
습니다. 하나를 담으면 다른 하나를 떨어내
며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미처
깨닫지 못했습니다. 이제 서서히 내려놓는
연습을 하겠습니다. 자식도 남편도 형제도
그리고 내가 붙들고 놓지 못했던 모든 것
에서 이제 그만 자유를 선언합니다. 항상 젊은
청춘인 줄 알고 출렁했던 시간들을 이제 반
납합니다.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어
렵겠지만 이제는 비워야 할 때. 반생을 대중
앞에 서서 갈채를 받았던 저 가수께서 아
름다운 퇴장을 위해, 박수 칠 때 서둘러 이별을
준비하는 모습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
았습니다.'

나는 마치 고해소(告解所) 안에서 성사(聖
事)를 보듯 구구절절 뇌가리고 나니 가슴이
한결 트이고 후련해졌다. 모처럼 누워있는
동안 많은 것을 찾았다. 잃어버린 나를 찾아
떠난 시간이었다고. 내 안의 장벽을 허무는 시
간이기도 했다.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이
에게 보내는 화해의 몸짓이기도 했다. 이제야
알았다. 두 발과 목을 묶어 둔 이유를. 이제야
비로소 알았다. 느닷없이 침대에 눕힌 그
분의 깊은 뜻을.

약력

▲'수필과 비평' 등단(1992)
▲대한문학상, 황희문화예술상 수상
▲저서 '꽃들의 반란', 공저 '우리들
의 사랑법'
▲현광주문인협회 이사



방수제 · 바닥재 · 환화제 ·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

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? 기술이 필요없습니다.

방수! 바닥! 직접 공사하세요!

적용현장 및 시공범위

옥상, 외벽, 지하실, 공장바닥, 주차장, 흙집, 물탱크, 양어장, 수영장, 화장실 타일, 기와집,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,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

생산 품목

[DK-301]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/ 드림탄²
[DK-303] 상도코팅방수제(녹색, 회색)셀프탄
[DK-305] 무색침투도막방수제 / 드림데칼³
[DK-307] 균열 보수제 / 다막스
[DK-306] 수용성 투명 발수제 / 탑코팅
[DK-308] 천연황토코팅제 / 황토리
[DK-5000] 광택증진 & 오염방지코팅제 / 오염스톱

특징

-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
- 기술이 필요없다
-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
- 경제적이다
-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
-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
- 미끄럼, 방지기능을 한다
-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
-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
- 소비자가 인정했다

※전화 문의시 방수·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. (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)

△유사품에 주의하세요

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.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.

특허청 DREAM BRAND

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D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

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(무담보, 무보증) 문의 : 080-362-7788 www.dreamchemicalkorea.com

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-308 황토리

